

2000년대 독서운동과 독서경향 연구

A Study on Reading Movement and Readers' Interest in the Period of 2000's

윤 금 선(Keum-Sun Yeun)*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2000년대 독서경향 |
| II. 200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 | 1. 일반인 독서경향 |
| 1. 도서관과 공공기관의 독서운동 | 2. 학생 독서경향 |
| 2. 서점 및 매체, 각종 단체의 독서운동 | 3. 2000년대 독서경향과 그 시사점 |
| 3. 학생 독서운동과 학교 독서교육 | IV. 맺음말 |
| 4. 2000년대 독서운동과 그 시사점 | |

초 록

이 연구는 근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2000년대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간 근대 독서가 시작된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에 관하여 고찰한 바 있으며 본고는 그 후속 연구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2000년대의 독서현상을 전 시기의 독서현상과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징적인 면을 도출해 내고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현주소를 찾아보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에서는 첫째, 독서운동으로 1) 도서관과 공공기관의 독서운동, 2) 서점 및 매체, 각종 단체의 독서운동, 3) 학생 독서운동과 학교 독서교육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둘째, 독서경향은 1) 일반 독서경향, 2) 학생 독서경향으로 대별하여 그 특징적인 경향을 살폈다. 독서운동과 독서경향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향후 독서교육 및 독서 대중화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시키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키워드: 독서 대중화 운동, 독서경향, 독서교육, 도서관, 2000년대, 일반인 독서, 학생독서

ABSTRACT

This research purpose to investigate aspect of reading movement and readers' interest in the period of 2000's, This is succession research that is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fter release, the 1950s, the 1960s, the 1970s, 1980s, 1990s. Through such series, namely, reading phenomenon analyzing comparison, is to find present address of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and reading education. In main discourse, First, investigated reading movement, in the period of 2000's(1. the reading movement of library and public institution, 2. the reading movement of bookstore and medium, and several organization's, 3. student reading movement and school reading education). Second, readers' interest observed in the period of 2000's.(1. ordinary readers' interest, 2. student readers' interest). If we correct judgment about reading phenomenon from now. It will be foundation that unfold reading education more effectively.

Keywords: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Readers' Interest, Reading Education, the Library, the Early Period 2000's, Reading of Student, Reading of Ordinary People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전임강사(east124@dongduk.ac.kr)

· 접수일: 2008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8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8년 9월 22일

I. 머리말

이 연구는 2000년대 독서운동과 독서경향을 독서 대중화 운동의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특히 본고는 근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 한 부분에 속한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의 독서운동과 독서경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양상을 고찰했다.¹⁾

기존의 독서 관련 연구는 주로 도서관 및 정보학, 국어교육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도서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경향을 보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기타 기관의 독서 관련 자료 통계나 지배적 경향들을 통하여 독서현상을 파악하고 그 현실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교육학 분야에서는 특별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읽기 지도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논문들이 지배적이다. 최근에 들어서서는 문헌정보학, 문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학제적 성격에 따라 각기의 주안점과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그 외 부분적으로 국문학 분야에서 특정 작가의 작품읽기, 고전의 독서론 등을 다룬 경우도 있다.

본고는 독서운동 및 독서교육의 제반 현상들을 독서 대중화 운동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사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의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물들을 보면 베스트셀러를 통해 독서의 사회사를 살펴 본 경우,²⁾ 독서 대중에게 반영된 독서현상을 독서생활사로서 드러내려 한 경우³⁾가 대표적이고 최근에 근대의 '책 읽기'를 문화변동과 사회적 소통 양식의 변화로 파악한 경우⁴⁾가 주목을 받긴 했으나 근대 독서 현상만을 제시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고는 시기적으로 이미 근현대 전반을 다룬 가운데, 일반 대중에게 반영된 독서운동과 독서경향을 주목하면서 수용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1) 윤금선, "1920-30년대 독서운동 연구," 한말연구, 제17집(2005, 12).; 윤금선, "讀書新聞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15집(2005, 6).; 윤금선,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7집(2006, 6).; 윤금선, "독서 대중화운동 연구-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6).; 윤금선, "독서 대중화운동 연구-1970년대 초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24호(2007, 10).; 윤금선, "1970년대 독서 대중화운동 연구-중·후반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20집(2007, 10).; 윤금선, "1980년대 전반기 독서운동 사례와 독서경향 분석," 독서연구, 제19호(2008, 6).; 윤금선, "1980年代 中後半期 讀書大衆化 運動 研究," 語文研究, 제137호(2008, 3).; 윤금선, "1990년대 초 독서 대중화 운동과 독서교육,"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3) 등.
- 2) 김미현,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 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 -1980~1990년대 소설의 "아버지" 담론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36집(2005), 이은정,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 -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시에 나타난 독자의 실천적 독서욕망", 한국시학연구, 제13집(2005), 오경복,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 -1970년대 소비적 사랑의 대리체험적 독서-", 비교한국학, 제13집 등.
- 3) 황혜진, "독서생활사 연구를 위한 시론 -연구 방향과 자료 기술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19집(2007, 6) 등.
- 4)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서울 : 푸른역사, 2003).

본고에서는 2000년대의 시기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당대의 독서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독서경향은 어떠한 양상을 띄고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특별히 독서경향은 일반인과 학생으로 그 대상을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독서운동의 양상과 공교육 내에서의 독서교육의 현상을 구별하여 살펴려는 목적에서였다. 구체적으로 독서운동은 1) 도서관과 공공기관의 독서운동, 2) 서점 및 매체, 각종 단체의 독서운동, 3) 학생 독서운동과 학교 독서교육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독서경향의 경우 일반인은 1) 문고본 시대의 부활, 인터넷 서점의 성장, 2) 자기계발, 새 직업 관련서의 인기, 3) 다매체 시대의 멀티미디어 붐, 4) 여행 산문집과 근대 조명의 서적 인기, 비주류 베스트셀러 등의 항목으로, 학생은 1) 어린이 책, 출판 분야 수위권, 전집류 붐, 2) 불황 없는 학습지 시장, 3) 부담없는 책 즐기는 대학생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적인 경향들을 살펴 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당대 독서운동 및 독서교육의 제반 현상들을 일종의 사회사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라 그러한 측면을 잘 드러내는 신문 자료를 텍스트로 삼았다.⁵⁾

II. 200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

1. 도서관 및 공공기관의 독서운동

2000년대에 들어 도서관의 정보화 사업은 전대에 비하여 보다 첨단화되었다. 2000년도 초에 정부에서는 인터넷 ‘국가전자도서관(<http://www.dlibrary.go.kr>)’을 통해 국내 모든 도서관 소장 도서의 목록과 목차를 검색할 수 있게끔 조치하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 381곳에 신형 컴퓨터 장비를 갖춘 디지털 자료실을 마련하였다. 자료실에는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엔진과 영어, 일어 등의 외국어를 한글로 자동 번역해주는 프로그램 등도 구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안에 3백75억원을 들여 전국의 공공, 대학, 특수도서관에 있는 모든 소장자료(도서, 논문, 잡지 9천7백만책)의 목록과 소장 도서의 목차(1백만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자료 목록 DB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학술정보연구원 등 7개 주요 도서관이 합동해 만든 국가전자도서관에서 전체 도서관 자료의 56%(5천4백만책)를 구축, 서비스 중이다.

조현욱, “내년부터 모든 도서관자료 인터넷 검색 가능.”

5)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주로 2000년부터 2008년 7월까지 발간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이다. 사실 전담의 매체라는 신문의 성격상, 당대 독서운동의 보도 기사는 어느 신문이나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어느 신문을 택해도 크게 차이지는 부분은 없다고 여겨진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3호)

주최측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2001~2002년에는 학술 서적을 중심으로 자료의 전체 내용, 핵심 단어, 요약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문, 키워드, 초록(抄錄) DB도 각각 300,000 책 분량씩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신간을 납본할 때 키워드와 초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착수했다.⁶⁾ 이러한 정보화 추진 사업들은 지식경영상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이후 공공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정보 수요자의 시간과 노력을 훨씬 줄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⁷⁾

200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다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2,500,000,000,000원의 재원을 마련해 투자하겠다는 계획 하에,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자 했다. 먼저 2003년까지는 전국 437개 공공 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했다. '국립도서관'에서 당시 구축하고 있는 도서 DB를 기초로 전국의 공공 도서관들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함으로써 다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목록, 책 목차, 내용 요약(초록)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 도서관의 장서를 검색·대출하는 상호대차, 근처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타 도서관에 반납하는 공동 대출·반납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도서관마다 디지털 자료실을 만들어 e-북, CD롬 등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대출해 주었고 책마다 전자칩을 부착하여 자동 대출과 반납이 가능해졌다.⁸⁾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다는 생각은 이제 진부한 것이 되었다. 전 시기부터 공공도서관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모해오고 있었던 터이지만, 2000년대를 맞은 현대 도서관은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한 종합 문화공간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논술특강, 어학강좌, 독서교실, '영어동화'('우리동화') 들려주기, 독서능력과 정신 집중력 향상을 위한 속독법 공개 강좌, '자녀지도를 위한 무료 국어교실', 각종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종의 문화학교로서 역할하게 된 것이다.⁹⁾ 소위 정보도서관(정보문화센터)이라 하는 '작은 도서관'이 지역마다 설립되어 주민들에게 도서 대여나 다양한 독서 장려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문화 활동을 펼침으로서 평생교육의 장이 되었다.¹⁰⁾ 한편 도서관의 활발한 독서운동과 달리 도서관수는 부족한 형편이었다. 2006년 1월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은 모두 10,000개 내외였다. 그나마 전체 도서관 가운데 90% 이상은 학교도서관이며,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반 이상이 교육청 소속이었다. 이에

6) 조현욱, "내년부터 모든 도서관자료 인터넷 검색 가능," 중앙일보, 2000. 3. 15. 17면.

7) 김경자, "정보 재가공할 전문사서 채용해야," 중앙일보, 2001. 4. 2. 5면.

8) 신준봉, "공공도서관 하나로 묶는다," 중앙일보, 2002. 8. 7. 19면.

9) "국립중앙도서관, 학부모에 독서지도법 강좌," 중앙일보, 2000. 4. 3. 21면. 김방현, "대전시내 도서관들 외국어·논술 무료강좌 풍성," 중앙일보, 2000. 1. 15. 27면. 전익진, "고양은 공공도서관 선진 도시," 중앙일보, 2008. 3. 24. 14면.

10) 그 외 주목되는 몇 가지를 부연하면, <금천도서관>의 경우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안내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실이 마련돼 있고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였고, <부산시민도서관>은 '도서택배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김영훈, "문화가 있는 공간 도서관," 중앙일보, 2001. 11. 3. 27면. 김관중, "부산시민도서관 택배대출," 중앙일보, 2001. 11. 30. 25면).

도서관 부족과 함께 장서 부족 현상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어린이 도서관은 2000년대 들어 더욱 활성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먼저 '노원 어린이도서관'은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1,000명이 넘어 단체 견학을 하려면 6개월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였다. 어린이 도서관답게 건물의 설계부터 도서관 내 운영 프로그램까지 모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졌다.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1층의 유아 열람실은 마루방 형태로 만들어져 안방에서처럼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초등학생을 위한 2층 열람실은 좌석 70석에 20,000 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2층 문화교실에서는 어린이 책 읽기 지도 강좌와 동화구연 수업, 문화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지하 1층에는 각종 놀이기구가 비치되어 있는 놀이교육 교실이 있고,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인터넷 검색은 물론 1,000 여종의 전자책과 각종 CD롬·DVD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술공연과 인형극, 유아용 애니메이션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¹¹⁾

'서울시립 어린이도서관'도 1,000석이 넘는 좌석에 190,000여 권의 도서, 8,000 여점의 시청각 자료를 갖추고 있다. 책 대여나 독서활동 외에도 서예, 어린이 책 만들기, 영어동화 구연, 종이접기 교실 등이 열리며 어린이 독서연구회도 운영되었다. 서울 상계동·구로동·월곡동·가양동 등 4곳에 위치한 '인포 어린이도서관'은 에스콰이어문화재단이 설립·운영하는 곳으로 각각 10,000권 이상의 아동도서를 갖추고 있으며 지방에도 10곳이 운영되었다.¹²⁾

한편 민간 어린이 도서관 운동도 활발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가운데 규모는 작더라도 알차게 운영되는 곳도 많았다. 행당동에 위치한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는 30평 남짓한 공간에 5천 권 이상 아동도서를 갖추고 있었다. 대전에서는 엄마들이 중심이 된 어린이 도서관 개설 붐이 일기도 했다. 2000년 '모퉁이 도서관(전민동)'이 문을 연 뒤 2005년에는 '알짹(석교동)'이 설립되었고, 2007년에는 '짜장(중촌동)', '또바기(와동)', '해뜰마을(관저동)', '짜쿵마을(태평동)', 그리고 '강아지똥(대성동)'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이들 7개 어린이 도서관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를 만들고 작은 문화자치를 지역에서 운영해 가고 있다.¹³⁾ 서울시내 및 전국 공공 도서관 중 상당수도 어린이 전용 열람실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는 아동 도서 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비디오, 오디오 자료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과 정보·생활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 놀이공간에 주력하였는데, 공간 확보가 되는 지역에서는 청소년 사랑방과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동아리방, 이벤트룸이 갖춰지고 정보검색을 위한 인터넷방과 정보상담실, 자료실 등도 설치하였다. 독서공간, 비디오감상실, 음악연습실, 공연

11) 신은진, "인터넷 검색서 독서지도까지," 중앙일보, 2004. 2. 19. 13면.

12) 김은하, 김태성, "어린이 도서관은 지식 놀이터," 중앙일보, 2007. 1. 17. C2면.

13) "주민 참여 공공도서관 늘리자," 중앙일보, 2007. 10. 10. 33면.

연습실, 미술창작실 등 문화 체험공간도 들어서는 곳이 있었으며, 도서 대출로 인근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¹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준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2. 서점 및 매체, 각종 단체의 독서운동

바로 이전 시기인 1990년대는 IMF의 충격으로 출판계나 서점업계의 연쇄부도가 잦았던 시기이다. 경제 불황이 다소 극복된 2000년대에 들어선 초기에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중에도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 도매점이 성장을 하긴 했으나, 중·소형 서점의 폐업, 전업이 속출하였다. 1999년도에 4,595개점에서 2000년도에는 3,459개 점으로 줄어들어 무려 1,136개 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¹⁵⁾ 또한 한국 출판문화의 상징인 종로서적이 부도를 내고 문을 닫게 되었다. 종로서적의 폐점은 책꽂이나 서대에 책을 전시하는 낡은 판매 방식으로는 서점이 살아남을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미 대세가 돼버린 인터넷 서점과 대형서점화 추세 속에서 어떻게 지역 서점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¹⁶⁾

한편 IMF 직전까지 문화복합 공간으로 역할했던 서점의 활동상도 찾기가 힘들었다. 단지 대형 출판사 등을 통한 독서운동의 움직임이 있었을 뿐이었다. 대표적으로 교보문고는 2000년에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대구와 부산에 ‘교보문고 정보센터’를 개설했다. 대구시 동구 동성로의 정보센터는 400평 공간에 20,000 여종의 책을 갖춘 도서정보실과 CD-ROM 검색 센터, 북카페, 갤러리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교보문고는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북마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북마스터는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사원 중 내부 심사를 거쳐 뽑힌 정예 요원들이었다. 이들은 기존 도서 안내 직원과 달리 매장에서 책을 찾는 독자들과 도서 상담 및 안내, 도서 설계와 같은 실질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문화행사 기획 및 특설코너 개발, 도서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았다.¹⁷⁾ 인터넷 영풍문고도 월간 『베스트셀러』와 제휴해 베스트셀러 기사를 동시 게재하기로 했다. 1998년 11월에 창간된 『베스트셀러』는 문학과 문화의 대중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대중 문학잡지였다. 인터넷 영풍문고가 이 잡지와 제휴함으로써 네티즌들에게 웹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¹⁸⁾

14) 이효재, “경기 읍-면-동사무소에 청소년 놀이시설 마련,” 조선일보, 2000. 1. 20. 25면. 이충일, “영등포 대림1동 사무소,” 조선일보, 2000. 2. 10. 25면. 안남영, “청주 미니도서관,” 중앙일보, 2001. 8. 24. 25면.

15) 이중한 외, 우리 출판 100년, 서울 : 현암사, 2001, p.219.

16) “95년 된 서점 문닫은 까닭,” 중앙일보, 2002. 6. 6. 2면.

17) 하현욱, “교보문고, 국내 처음으로 북마스터 9명 선발,” 중앙일보, 2000. 3. 10. 19면.

18) “교보문고 정보센터 개설,” 중앙일보, 2000. 2. 10. 15면.



〈그림 1〉 “MBC 내달 10일부터 공익성 오락 프로 ‘!〈느낌표〉’ 방영,”
(이여기, 중앙일보, 2001. 10. 30. 45면)

그런데 출판계와 서점들의 독서운동이 위축된 상황과 달리, 매체 독서운동은 비교적 활발했다. 특히 방송 매체를 통한 독서 프로그램이 활기를 띠었다. 먼저 2000년도 KBS1 라디오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으로 ‘이주향의 책마을 산책’이 있었다. 독서인구가 줄고 인문서적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이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놓고 생방송 중 전화로 청취자의 의견을 듣는 ‘집중토론’, 저자 이외에 책 만들기의 숨은 주역들을 소개하는 ‘책마을 사람들’, 많이 들었으나 쉽게 손이 가지 않았던 책을 소개하는 ‘다시 읽는 고전’, 작가별로 작품 세계를 정리하는 ‘작가수첩’ 등 크고 작은 코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는 소설가 박범신, 최창조, 이윤기, 이경자, 이두호 등 다양한 작가들을 공동 진행자로 초청했다. 여기에 EBS에도 ‘정운영의 책으로 읽는 세상’이 신설되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신간 정보를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회 한 사람의 저자를 초청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꾸며졌다.¹⁹⁾

이후 TV에서도 독서 프로그램이 연달아 방영되기 시작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KBS-1TV ‘TV, 책을 말하다’, ‘!느낌표’의 ‘책을 읽읍시다’가 있었고, 2002년도에는 EBS의 ‘책과 함께 하는 세상’, MBC-TV의 ‘행복한 책읽기’가 가세했다. KBS1의 ‘TV, 책을 말하다’는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1부 ‘그들은 책을 읽었다’와 2부 ‘책읽기의 유혹’으로 구성되었다.²⁰⁾ 특히 ‘!느

19) 이후남, “이주향 교수 KBS 1라디오 ‘...산책’ 진행,” 중앙일보, 2000. 11. 7. 41면.

20) 우상균, “KBS ‘...책을 말하다’ 호평,” 중앙일보, 2001. 3. 7. 45면. 우상균, “KBS 독서프로 재미·교양 동시에 노려,” 중앙일보, 2001. 4. 25. 45면.

김표의 '책을 읽읍시다'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책에 대해 얘기하고 퀴즈도 풀어보는 프로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책을 읽읍시다'에서 소개한 『팽이부리말 아이들』, 『봉순이 언니』는 방영 당시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제치고 나란히 베스트셀러 1, 2위(교보문고)를 차지했다. 그만큼 출판계에 미치는 파장이 컸다.²¹⁾

당시 프랑스의 '부이용 드 켈튀르'(문화의 용광로), 미국의 '북 클럽', 독일의 '문학 사중주' 등은 지구촌의 대표적 TV 독서토론 프로그램들이다. 이 프로의 진행자인 프랑스 베르나르 피보, 미국 오프라 윈프리, 독일 마르셀 라이히 라니츠키 등은 대중과 책의 만남을 TV 매체를 통해 주선하는 스타급 BJ(북자키)였다. 방송과 책이 만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국내에도 학식있는 저명인사들이 진행²²⁾하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난 것이다.²³⁾ 책 시장 확대와 그 시장의 왜곡이라는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지만, 한동안 TV 내 책읽기 프로그램의 실종 상태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선전(善戰)은 독서 대중화에 영향력을 끼쳤다.

또한 신문 저널에서도 양서 추천 활동이 활발했다. 일례로 중앙일보는 신간 도서를 대상으로 '좋은책 100선'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1998년부터 독서 대중에게 양서를 소개하고, 출판인에게는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기본적인 심사 기준은 '국민 정서함양에 적합하고', '창의성과 논리성을 높이고 지적 호기심을 고취하며', '건전한 도덕관과 가치관 정립에 적합한 도서'였고, 국내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해 연령대별로 양서가 선정되었다.²⁴⁾ 뿐만 아니라 신문사마다 북리뷰 섹션을 통해 출판계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한 정보와 신간 서평을 다수 보도했다.

기타 몇 가지 주목되는 독서운동을 살펴 보면, 먼저 지하철 독서운동은 전 시기에 이어 꾸준히 전개되었다. 서울이나 지방의 지하철 문고는 기증된 책의 보유량이 늘어나 승객들에게 도서를 더욱 가깝게 했으며, 2002년도에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2002 메트로 북메세'를 운영하기도 했다. 마침 월드컵 기간과 맞물려 외국인들에게 국내 출판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문화 관광 상품이 되었다. 차량 외부에 훈민정음을 비롯한 다양한 한글체와 금속활자체 등을 이미지화한 특별 전동차는 당시 승객 2천여 만명에게 '달리는 책 박물관' 역할을 하였다.²⁵⁾ 한편 2005년도부터 '와우북 페스티벌'이라는 책의 축제가 열렸다. 독자가 저자를 만나고 다양한 책 관련 문화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서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였다.²⁶⁾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2000년대에

21) 홍수현, "MBC '!' 느낌표' 독서캠페인 말은 많지만 공정성 유지하며 오래 남길," 중앙일보, 2002. 2. 26. 17면. 박지영, "MBC '느낌표' 독서·아침밥 캠페인 화제," 중앙일보, 2002. 1. 15. 45면.

22) 일례로 '이주향의 책마을 산책'은 이주향 교수(수원대 철학과)가, '정운영의 책으로 읽는 세상'은 정운영 교수(경기대 경제학부), 'TV, 책을 말하다'에서는 박명진(서울대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메인 MC였다.

23) "데스크쪽지," 중앙일보, 2002. 4. 13. 41면.

24) "2001 좋은 책 100선 공모," 중앙일보, 2001. 6. 2. 33면. 김정수, "어떻게 선정했나," 중앙일보, 2001. 6. 30. 33면. "행복한 책읽기 서평자문위 발족," 중앙일보, 2001. 11. 3. 41면.

25) 정용백, "지하철 문고에 책 기증 잇따라," 중앙일보, 2000. 10. 5. 27면. 김정수, "지하철에 책을 싣고," 중앙일보, 2002. 2. 6. 23면.

26) 김성희, "지적으로 놀아 볼까 오늘부터 흥대 앞서 '와우북페스티벌,'" 중앙일보, 2007. 10. 5. 23면.



〈그림 2〉 지하철 책열차(메트로 북메세)(조선일보, 2002. 2. 6. 19면)

들어서 군 병영 내에 도서관을 건립해주는 “진중 도서관 건립 운동”이 펼쳐졌다는 점이다. 1999년 발족된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는 교수·출판평론가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추진위원 20명, 실무위원 20명을 중심으로 2003년 당시까지 모두 14곳의 진중 도서관을 개관했다. 도서관 한곳 당 평균 3,000여권 씩, 모두 1,500여 종 42,000여 권의 책을 군에 기증했다.²⁷⁾ 여기에 국방홍보원 국군방송에서도 주간 독서 프로그램 ‘책마을 사랑방’을 장병과 일반 청취자들에게 선보였으며,²⁸⁾ 2003년도에 국회에서는 ‘국가는 각급 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설 조항을 담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도서 구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²⁹⁾

3. 학생 독서운동 및 학교 독서교육

가. 학생 독서운동

학생 독서운동은 이전 시기부터 주로 아동 대상의 활동이 주를 이루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기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발전되었고, 그 중 ‘어린이도서관연구회’와 민간단체인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은 지역마다 회원을 두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독서 모임이었다. 기사에 게재된 대표적인 활동들을 소개해 보면, 먼저

27) 신준봉, “책 읽는 병영 행복한 군대,” 중앙일보, 2003. 1. 24, 22면.

28) “국군방송도 독서 프로그램,” 중앙일보, 2003. 4. 11, S5면.

29) 신준봉, “군부대 ‘북스타트’ 출범,” 중앙일보, 2003. 5. 8, 22면.

‘강릉 동화읽는 어른 모임’은 1년에 한번씩 동화구연 공연을 했다. 그림자극, 슬라이드극 등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져 성황을 이루었다.³⁰⁾ 또 전주의 ‘온고을 동화 읽는 어른 모임’ 회원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화책을 골라 함께 읽은 뒤 정기적으로 만나 토론하고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고민을 나누었다. 이들은 책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갯벌탐사에 나섰고 수목원 등으로 ‘들풀기행’을 가기도 했다. 또 ‘내고장 작가와의 만남’이나 신문을 활용한 NIE 교육도 실시했다. 가을이면 ‘동화와 함께 한 문화 한마당’을 열어 책의 축제를 마련했다.³¹⁾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은 각 지역마다 결성되어 있었는데 다른 어떤 단체보다 어린이 독서운동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그림 3〉 지역마다 결성된 ‘동화읽는 어른모임’
(조선일보, 2004. 4. 23. A14면)

한편 90년대 중반기부터 일었던 아동 도서에 대한 관심이 이 시기에는 정착되는 분위기였다. 수도권 곳곳에는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의 전문 서점들이 여러 개 운영되었다. 대부분 5년 이상 운영된 서점들로서 어린이들의 독서 취향에 알맞게 책을 비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도록 유도했다.³²⁾ 어린이를 위한 전문

30) 조상원,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인기,” 중앙일보, 2001. 1. 29. 23면.

31) 장대석, “전주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중앙일보, 2001. 3. 29. 23면.

32) 그 예를 들어 보면 서울 강남구의 ‘초록공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상담해 주면서 도서관과 비디오, CD도 대여해 주었으며, 우리 그림책 즐기기, 어린이 독서지도 등을 1주일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열었다. 서대문구의 ‘초방’ 80년부터 시작되어 어린이들의 지식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 서점이었으며, 분당의

서점의 활성화는 고학력 부모들이 급증하고 아동 독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음을 반증한다.

학생 독서운동과 관련하여 ‘독서인증제’, ‘독서능력 측정’ 등이 거론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4년 4월 제1회 ‘한국독서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되었다. ‘전국독서새물결모임’, ‘한국독서능력평가원’, 중앙일보 등이 연합하여 시행했는데,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높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지녔다. 시험은 제7차 교육과정을 고려해 읽기·쓰기·말하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1년에 봄·가을로 두번 치뤘다. 최하 10급에서 최고 1급까지 10등급으로 되어 있었고, 1~2급은 3급 자격을 얻어야 응시할 수 있게 했다.³³⁾ 한편 독서능력을 측정해 주고 독서 이력을 관리해 주는 시대가 되기도 했다. 먼저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는 전국을 돌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수준 진단검사를 해주었다. ‘독서태도’와 ‘독서력’ 등 두 가지 분야에서 어린이들의 독서 수준을 파악하여 독서 능력을 측정했다. ‘독서태도’는 독서를 잘 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책을 읽는 것에 대한 흥미 정도와 책 읽는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독서력’은 책 내용의 이해 정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습득력, 감상능력을 뜻했다.³⁴⁾ 또한 부산시 교육청은 인터넷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독서 이력을 관리해 주는 ‘독서교육지원시스템’(reading.busanedu.net)을 운영했다.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이 읽은 책을 클릭하면 책 내용에 대한 독서퀴즈를 풀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 권장도서는 한 권당 30문제, 초등학생 책은 10문제씩 나왔다. 독서 감상문이나 편지, 동시쓰기 등 독후활동도 인터넷 상에서 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이 시스템은 부산 뿐 아니라 강원, 경기 등 전국 250,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었다.³⁵⁾

신문의 보도 지면에서도 독서 지도 관련 다양한 기사들이 실리면서 학생 독서교육의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 ‘내용 이해하기’, ‘글 요약 연습’, ‘수준별 읽기 지도’, ‘장르별 독서 방법’ 등 구체적인 독서 지침 내용들이 제시되었다.³⁶⁾ 인터넷 공간의 독서문화도 활성화되었는데,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독서시장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어린이들의 독서능력도 온라인으로 진단해 주었다. 여기에 각종 단체나 학교도서관에서도 웹상으로 도서를 대출하여 읽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러 책(전자책)을 보다 쉽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³⁷⁾

‘가을 글방’도 서점과 함께 도서관도 운영하였고, 동요 부르기, 시 낭송, 매직풍선 만들기 등 행사도 열었다. 양지마을의 ‘파란나무’에선 이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과 나이를 고려해 책을 추천해주었고, 일산의 ‘동화나라’는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행복한 왕자’는 어린이 책만을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도서대여점이며, ‘해피프린스’는 어린이 동화책만 판매하는 곳이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다(김영훈, “서울·경기지역 ‘어린이 전문서점’ 각광,” 중앙일보, 2001. 1. 19. 18면).

33) “학생·일반인 대상 독서능력 검정시험,” 중앙일보, 2004. 2. 9. 12면. 이찬호, “독서능력도 이제 자격증 시대,” 중앙일보, 2004. 2. 21. 29면.

34) “독서능력 무료 검사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 중앙일보, 2004. 5. 18. C7면.

35) 한애란, “인터넷으로 독서 이력 관리해요,” 중앙일보, 2005. 12. 28. C3면.

36) 허병두, “청소년에 책 권할 때 눈높이를 맞추자,” 중앙일보, 2002. 11. 16. B5면. “책 내용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목차 학습’ 논리적 사고 키워,” 중앙일보, 2006. 3. 15. C2면. 고정애, “기술·예체능 독서 지도 이렇게,” 중앙일보, 2006. 4. 5. C3면 등.

37) “클릭하면 책 한 권이 ‘쑥,’” 중앙일보, 2004. 8. 23. C1면.

나. 학교 독서교육

“초·중·고 도서관은 ‘책창고’ 전략”(김정수, 중앙일보, 2002. 3. 11. 15면)이라는 기사를 보면, 2002년 개재 당시 일본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9%, 1인당 장서수는 20권이였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78.6%, 4.6권(2000년 교육부 통계)이였다. 또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에서는 전국 4만여 초·중·고교에 2003년 3월까지 전담 사서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 반면 우리나라 전국 10,500여개 학교 중 전담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150여 개에 불과했다. 그만큼 학교도서관이 열악했다는 이야기이다. 새로운 ‘정보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일소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의 소리는 높았지만 여전히 입시교육 중심이였고, 학교도서관은 소홀시 되었다. 특히 도서 구입비는 교육부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 교육비의 3%’를 크게 밑돌았다.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는 신규책보다 소장 가치가 사라진 오래된 책들로 장서 수만 채워져 있었다.³⁸⁾



〈그림 4〉 “초·중·고 도서관은 ‘책창고’ 전략”
(김정수, 중앙일보, 2002. 3. 11. 15면)

대학 도서관의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성의 황폐화-대학도서관”(배영대, 중앙일보, 2002. 3. 8. 16면)이라는 기사를 보면, 당시 국내 대학 도서관도 공공도서관 등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험 준비용 독서실 기능이 주였다. 이 기사에서는 외국 대학과 우리 대학 도서관을 비교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한 대학 안에 도서관이 여러 개 설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당시 미국 하버드대는 도서관이 90개나 되었는데 중앙도서관, 단과대 도서관, 전문 도서관 등 수십개가 보통이였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수는 현저하게 부족한 편이였다. 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진성도 지적했다. 당시 통계를 보면 하버드대 도서관의 1인당 장서 수는 474권이이고, 국내

38) “지식정보의 무덤으로 전락하는 도서관.” 중앙일보, 2006. 12. 6.

최대인 서울대는 62권, 서울대와 규모가 비슷한 버클리 대학은 240권이였다. 또한 국내 대학 도서관 전체에서 구독하는 해외 학술지가 총 15,000종인데 반해 하버드대학 도서관 한곳에서만 구독하는 학술지 총수가 110,000 종이였다고 한다. 대출면에서도 국내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2001년 『교수신문』 조사에 따르면 대학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책은 대부분 무협·팬타지류 등 가벼운 읽을거리였다.³⁹⁾

하지만 2003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대학의 자율적 선발이 강화되자⁴⁰⁾ 독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도 대학 입시 개선안에서 독서교육을 활성화시켜 대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피력하자 그 파장은 더욱 컸다.⁴¹⁾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 추천도서 매뉴얼을 만들었고, 기타 여러 관계 단체에서도 추천도서 목록을 제시하였다.⁴²⁾

우리나라 독서교육은 2000년대 이전부터 입시의 반영 여부에 따라 강조되기도 소홀히 다루어졌던 사안이기도 하다. 2000년대에도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학교 독서교육이 중시되었다. 보도를 통해 주시되었던 몇 개의 예를 보면, 대학의 경우 강원대는 2001년도에 국내 대학 최초로 '독서분야 인증제'를 도입했다. 독서하지 않는 풍토를 쇠신하려는 고육책으로 일정 수준의 책을 읽지 않으면 졸업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에서 나온 것이다.⁴³⁾ 전북 만경여고 학생들은 3년 동안 최소 100권의 책을 읽어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학교는 수준별 독서교육을 실시했는데, 1학년은 매주 한권, 입시를 앞둔 3학년도 최소 2주에 한권씩은 읽어야 했다. 신입생에게 책 제목, 작가 등을 써오도록 한 뒤 이를 활용한 퍼즐게임을 실시하여 친근감을 심었고, 신문의 책 광고, 서평 등을 따라 써보도록 하거나 독서일기로 적고 만화로 그려보도록 했다. 2학년이 되면 독서를 통해 사교력, 표현력을 기르는 심화 학습과정에 들어갔다. 명시(名詩)에 빗대 자기 생활을 표현하는 '패러디 해보기', 작품의 주인공과 가상의 대화를 해보는 '인터뷰 독후감 쓰기', '소설의 내용으로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교육을 지도했다. 3학년 때는 '춘극 시나리오로 개작하기', 작품을 이어가는 '속편쓰기', 내용 중 낱말을 이용한 '퍼즐게임', 같은 주제의 책을 비교하는 '책 대(對)책 토론회' 등을 열었고, 2월에는 학생들의 과제를 모아 전시하는 독서축제를 열었다.⁴⁴⁾ 서울의 구남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책읽기에 흥미를 갖게 하려는 의도에서 독서 퀴즈대회를 개최하였다. 필독서는 '명예 독서교사'와 학생들이 뽑은 추천서들이었고 읽은 정도에 따라 1~3급의 독서인증서를 주었다. 자체 개발한 독서기록장을 기록하게 했고, 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줄거리를 만화로 표현하기, 이야기의 끝부분 이어쓰기 등 30여 가지의 다양한 독후감 작성 방법을

39) 배영대, "지성의 황폐화-대학도서관," 중앙일보, 2002. 3. 8. 16면.

40) "2003학년도 대입 대비 요령," 중앙일보, 2001. 9. 25. 이승녕, "고교 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 논술·면접에 대비 '독서 열풍' 예고," 중앙일보, 2004. 8. 27. 11면.

41) 허병두, "독서교육, 입시 연결은 신중해야 한다," 중앙일보, 2004. 11. 17. 29면.

42) 김성희, "책과 담 쌓게 하는 학교," 중앙일보, 2005. 5. 11. 35면.

43) 박용수, "특성화 전략, 우리 대학은," 중앙일보, 2001. 12. 6. 23면.

44) "전북 김제 만경여고 책 100권 읽어야 졸업," 중앙일보, 2001. 11. 23. 27면.

제시했다.⁴⁵⁾ 이렇듯 제시한 몇 가지 기사는 대표적인 사례지만, 당시 학교 독서교육은 전대(前代)에 비하여 보다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풍토였다.

3. 2000년대 독서운동과 그 시사점

앞서서 일반인 독서운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 보았다. 첫째, 도서관과 공공기관의 독서운동, 둘째, 서점 및 매체, 각종 단체의 독서운동, 셋째, 학생 독서운동과 학교 독서교육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의 경우를 보면 2000년대에 도서관의 정보화 사업은 전대에 비하여 보다 첨단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초에는 인터넷 '국가전자도서관'을 통해 국내 모든 도서관 소장 도서의 목록과 목차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신형 컴퓨터 장비를 갖춘 디지털 자료실도 마련되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 추진 사업들은 지식경영상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가치있는 자료에 대한 초록을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작업으로 정보 수요자의 시간과 노력이 훨씬 줄게 되었다. 어린이 도서관도 2000년대 중기에 보다 더 활성화되었다. 대개의 어린이 도서관은 건물의 설계부터 도서관 내 운영 프로그램까지 모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졌고 좌석과 장서를 다수 갖추게 되었다.

한편 바로 앞 시기인 1990년대는 IMF의 충격으로 출판계나 서점업계의 연쇄부도가 잦았던 시기이다. 경제 불황이 다소 극복된 2000년대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 도매점이 성장을 한 반면, 중·소형 서점의 폐업, 전업이 속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대형 출판사 등을 통한 독서운동의 움직임이 확인될 수 있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주목되는 것은 TV 방송 매체를 통한 독서 프로그램이 많아졌고 인기리에 방영되었다는 점이다. TV는 그 어느 매체보다 파급 효과가 큰 매체라 할 수 있는데, 시청자의 호응이 높았던 이러한 독서 프로그램들은 독서 대중화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또한 학생 독서운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 그 중 '어린이도서연구회'와 민간단체인 '동화를 읽는 어른 모임'의 활동이 주목된다. 이 단체들은 1990년대에 설립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 보다 활성화되었다. 특히 '동화를 읽는 어른 모임'은 지역마다 회원을 두고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독서 모임이었다. 여기에 아동 도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일어 수도권 곳곳에는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의 전문서점들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학생 독서운동과 관련하여 '독서인증제', '독서능력 측정' 등이 거론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신문 지면에서도 고정 칼럼으로 독서지도란을 두고 학생 독서교육을 위한 지침 내용들을 단계별로 게재하였다. 인터넷 공간의 독서문화도 활성화되었는데,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독서시장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웹상으

45) 이후남, "서울 구남초등교 이색 독서지도 화제," 중앙일보, 2001. 6. 28. 21면.

로 도서를 대출하여 읽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그런데 이렇듯 학생 독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실정이었다. 지식기반 사회를 외치는 교육개혁의 소리는 높았지만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이었고, 이의 결과 대부분 학교도서관은 소홀히 운영되어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정책의 변화로 학교마다 효과적인 독서교육에 부심하고 있다. 이후 입시와 상관없는 독서 풍토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I. 2000년대 독서경향

1. 일반인 독서경향

가. 문고본 시대의 부활, 인터넷 서점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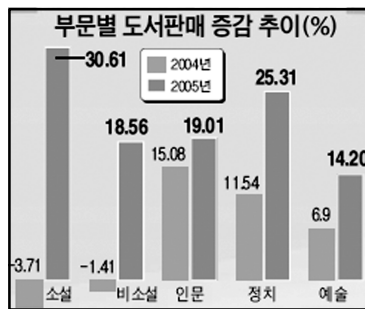
2000년대 초기에 출판계에 문고판 바람이 불었다. 국내 문고판은 1960, 7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다. 문고판은 가격이 싸고 휴대가 편리한 이점 때문에 70년대 초에는 독서문화를 바꿔 놓을 정도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76년까지 30여 출판사에서 10,000종이 넘는 문고판을 냈으며, 삼중당 문고는 연간 2,500,000부가 팔릴 정도로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문고본이 난립하고 단행본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인기를 잃기 시작했고 80년대 이후 책의 고급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1990년대 말까지 기존 문고본들은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삼중당문고>, <서문문고>, <문예문고> 등 전성기를 누렸던 문고본이 다시 활성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책세상> 출판사는 ‘책세상문고 우리시대’라는



<그림 5> “출판시장에 문고본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인가?”
(승인배, 조선일보, 2000. 5. 29. 19면)

시리즈 제목으로 『한국의 정체성』,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를 비롯하여 5권의 문고본을 잇달아 출간했다. 이 중 첫 권인 『한국의 정체성』은 교보문고 인문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앞선 나온 <문학과 지성사>의 ‘문지 스펙트럼’과 <시공사>의 ‘시공 디스커버리’의 공과가 컸다. 이 문고본들의 성공이 문고시장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⁴⁶⁾ 그러다 문고본 붐은 지난 몇 년 주춤해졌다가 최근 2008년도에 다시 그 부활의 조짐이 보였다. 출판유통회사인 ‘임프린트코리아’가 2007년 9월말부터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문고판 시리즈 ‘핸디북’이 다시 호응을 얻은 것이다. ‘핸디북’이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매출액 4,000,000,000원에 이를 만큼 인기를 끌자 기존 단행본 출판사들도 문고판 제작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⁴⁷⁾

한편 2000년대에는 인터넷 서점이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책 20% 더 읽었다 교보 전국 집계” (신용관, 조선일보, 2005. 12. 14. A2면)에서, 전국 대도시에 10개의 영업점과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는 교보문고가 2005년도에 한해 도서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4년도보다 20%나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서점에서 50%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여, 인터넷 시대가 오히려 책 읽기를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보여줬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교보문고의 매출 신장을 이끈 것은 문학과 인문학이었다. 2003년 3.7% 매출 감소를 보였던 소설 부문이 30.6%나 성장했고, 역시 1.4%의 감소를 보였던 비소설(논픽션) 부문에서도 18.6%의 성장세를 보였다. 인문 부문에서도 19%나 성장하였다.⁴⁸⁾ 이같은 성장률은 교보문고라는 특정 서점에서 이뤄진 결과지만, 이 서점이 전국에 판매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매출 추이에서 일반적인 독서경향을 반영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수치라고 보았다. 또한 2005년 교보문고 매출 신장을 이끈 문학 부문의 대표적인



〈그림 6〉 교보문고 온·오프 전체 전년대비 판매량
(조선일보, 2005. 12. 14. A2면)

46) ‘문지 스펙트럼’은 96년부터 시작돼 2000년대 초기까지 모두 60권이 나왔으며, 95년 첫 책을 낸 ‘시공 디스커버리’는 당시 100권을 넘어섰다(승인배, “출판시장에 문고본시대가 다시 열릴 것인가?,” 조선일보, 2000. 5. 29. 21면).

47) 이지영, “손 안에 꼭 들어오는 책 ‘문고판’ 살아났네,” 중앙일보, 2008. 2. 21. 27면.

48) 인문 부문에서는 『선택의 심리학』, 『설득의 심리학』,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등 개인과 사회를 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책들이 주목받았다(신용관, “올해 책 20% 더 읽었다 교보 전국 집계,” 조선일보, 2005. 12. 14. A2면).

작품은 덴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와 미하일 엔데의 『모모』였다. 전 세계적으로 24,000,000권이 팔린 『다빈치 코드』는 국내에서도 2,400,000부가 팔렸고, 해설서, 반대서, 그리고 유사한 구도의 책들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종합 50위 내에서 국내 저작은 절반이 못 되는 22종(2001년엔 27종)으로, 몇 년 사이 베스트셀러에서 외국 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⁴⁹⁾

참고로 다음 <표 1>의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통계 현황을 보면, 2003년에 비해 신간 발행 종수에서 철학, 종교, 기술과학, 어학, 학습참고, 만화 등이 감소율을 보였고 대부분이 인문학 서적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신간 발행 부수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데 특히 학습참고, 만화가 전 시기나 그 이후의 시기에 비해서 하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표 1>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통계 현황(기간 : 2004 1. 1 - 12. 31)

구 분	신간 발행 종수			신간 발행 부수		
	2004	2003	증감률	2004	2003	증감률
총 류	297종	152종	95.3%	819,112부	253,620부	222.9%
철 학	584종	609종	▼4.1%	1,220,873부	1,217,705부	0.2%
종 교	1,181종	1,240종	▼4.7%	3,453,400부	3,331,384부	3.6%
사회과학	4,651종	4,125종	12.7%	7,568,140부	6,497,882부	16.4%
순수과학	514종	466종	10.3%	781,391부	782,793부	▼0.1%
기술과학	2,891종	3,330종	▼13.1%	4,909,665부	6,273,954부	▼21.7%
예 술	1,308종	1,205종	8.5%	2,500,800부	2,247,908부	11.2%
어 학	1,503종	1,512종	▼0.5%	4,461,121부	4,370,995부	2%
문 학	6,070종	5,586종	8.6%	15,523,287부	14,664,291부	5.8%
역 사	1,128종	915종	23.2%	2,259,033부	1,898,494부	18.9%
학습참고	1,485종	1,931종	▼23.0%	17,254,384부	20,777,012부	▼16.9%
아 동	5,915종	5,219종	13.3%	21,345,314부	15,774,856부	35.3%
계	27,527종	26,290종	4.7%	82,096,520부	78,090,894부	5.1%
만 화	7,867종	9,081종	▼13.3%	26,862,030부	33,359,330부	▼19.4%
총 계	35,394종	35,371종	0.1%	108,958,550부	111,450,224부	▼2.2%

* 출처: 문화관광체육부(<http://www.mcst.go.kr/main.jsp>)의 통계 자료.

나. 자기계발과 ‘새 직업’ 관련서 인기

독서시장의 주류라 할 수 있는 20, 30대의 책 선택은 전체 독서층의 주경향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당시 온라인으로 20~30대 독자들의 도서 구입 상황을 세대별 또는 성별 특성으로 분석하였는데, “2030세대의 책 선택”(김태훈, 조선일보, 2001. 9. 26. 57면)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대학 재학생과 사회에 갓나온 20대들

49) 신용관, “올해 책 20% 더 읽었다 교보 전국 집계,” 조선일보, 2005. 12. 14. A2면.

의 경우 토플 등 학습서를 많이 구입했으며, 30대들은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책 구입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 구매 도서에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20대 남성들은 영어 단어 학습 교재인 『콜린스 코빌드 영어사전』을 가장 많이 사 본 반면, 여성들은 스펜서 존스의 베스트셀러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가 베스트셀러 1위였다. 20대 남성들이 외국어와 컴퓨터 서적을 주로 구입한 데 비해, 여성들은 『거울』, 『호밀밭의 파수꾼』 등 소설과 에세이류를 선호했다. 이를 보면 20대가 자기중심적인 책을 선택한 반면, 30대들은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책이나 자녀를 위한 책을 많이 골랐다고 할 수 있다. 30대 남성의 경우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경호』를 비롯하여 베스트10 가운데 6권이 경제·경영서와 자기계발서로 나타났다. 30대 여성들은 20~30대 남성 20대 여성들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등 무려 19권의 어린이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 30위 안에 있어 주로 자녀에게 읽힐 책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위권 안에 소설은 『바이올렛』 단 한 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혼 여성이 다수인 연령대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20대 남자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출판사	분야
1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for Advanced learners	Harper Collins	어학학습
2	너 그거 아니?	문학세계사	실용 상식
3	B급 좌파	야간비행	에세이
4	The Blue Day Book	바다출판사	사진 에세이
5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웅진닷컴	인문 교양
6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진명출판사	경제 경영
7	한 권으로 끝내는 투자상답사 2종 핵심예상문제집	한연	수험서
8	TOEIC 답이 보인다	김영사	어학학습
9	생명의 삶	두란노	종교 월간지
10	Hackers TOEFL Grammar	해커스 어학연구소	어학학습

〈표 3〉 20대 여자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출판사	분야
1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진명출판사	경제 경영
2	The Blue Day Book	바다출판사	사진 에세이
3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웅진닷컴	인문 교양
4	거울	이레	수필
5	바이올렛	문학동네	소설
6	경호!	21세기북스	경제 경영
7	너 그거 아니?	문학세계사	실용 상식
8	호밀밭의 파수꾼	민음사	소설
9	두드려 보아요!	사계절	아동
10	EBS 수능출제유형분석 외국어영역	디딤돌	수험서

〈표 4〉 30대 남자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출판사	분 야
1	경호!	21세기북스	경제 경영
2	너 그거 아니?	문학세계사	실용 상식
3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진명출판사	경제 경영
4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한인	경제 경영
5	B급 좌파	야간비행	에세이
6	신뢰경영과 서번트 리더십	엘테크	경제 경영
7	The Blue Day Book	바다출판사	사진 에세이
8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	김영사	경제 경영
9	좋은생각	좋은생각	교양 월간지
10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웅진닷컴	인문 교양

〈표 5〉 30대 여자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출판사	분 야
1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북뱅크	아동
2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사계절	아동
3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웅진닷컴	인문 교양
4	영어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자신만만 유아영어	한울림	유아용 영어학습서
5	두드려 보아요	사계절	아동
6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진명출판사	경제 경영
7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6	가나출판사	아동 교양만화
8	The Blue Day Book	바다출판사	사진 에세이
9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5	가나출판사	아동 교양만화
10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4	가나출판사	아동 교양만화

* [표 2]~[표 5]까지는 “2030세대의 책 선택”(김태훈, 조선일보, 2001년 9월 26일자 57면 기사)에 제시된 표를 재인용한 것임).

한편 “인터넷 서점 ‘새직업’ 관련서 인기”(박영석, 조선일보, 2003. 10. 25. D2면)에서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www.aladdin.co.kr)이 조사한 ‘인기 검색어 순위’에 비친 독서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보면 『해리포터』, 『나무』, 『민음사 베스트 컬렉션』, 『삼국지』, 『냉정과 열정 사이』 순이었다. 『냉정과 열정 사이』(5위) 『대장금』(7위)처럼 영화·드라마와 책의 동반 상승은 매체 간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었다. 『나무』(2위), 『너』(22위), 『개미』(27위) 등 베르베르 작품이 인기였고, ‘이문열’(54위) ‘이윤기’(60위), 일본작가 ‘하루키’(75위)가 관심을 모았다. 한편 직장인들의 경우 ‘부동산’(40위) ‘재정국어’(57위) ‘교육학’(62위) ‘공인중개사’(91위) 등의 검색 빈도가 높았다. 직장인들은 20대 후반~40대 초반의 웹서점 주이용자들로서 ‘새직업’ 관련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쟁과 명퇴의 압력에 시달리는 세대를 반영한 것이라 풀이될 수 있다.

다. 다매체 시대의 멀티미디어 북

2000년대에는 컴퓨터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N세대를 겨냥한 전자책이 잇따라 선보였다. 국내 전자책 시장은 2000년 당시 1,000,000,000원 정도였다. 예스24(<http://www.yes24.com>)는 이미 구효서의 「정별(情別)」, 이순원의 「모델」, 이인화의 「려인(麗人)」을 발표한 상태에서 중진 작가 장편소설을 2001년 2월까지 e-북으로만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국내에서 e-북을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곳은 한국전자북, 북토피아, 예스24 등 3곳 뿐이었다. 나머지는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했다. 무료인 「려인」은 5,700여번의 다운로드, 3,000원인 「모델」은 5,000여번의 다운로드를 기록하였다.⁵⁰⁾



〈그림 7〉 MP3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오디오북
(중앙일보, 2000. 8. 16. 13면)

이와 함께 오디오북이 다수 개발되기도 했다. 오디오북이란 한마디로 ‘귀로 읽는 책’이다. 테이프나 CD형식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오디오북 외에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MP3로 책의 일부분을 다운받아 들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오디오북까지 나왔다. 오디오 북은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도 초기의 인기 분야였다. ‘미디어베이닷컴(<http://www.Mediabay.com>)’ 같은 오디오북 판매 사이트가 바로 책을 들려주는 곳이었다. 시 낭송 뿐만 아니라 논픽션, 소설, 실용서, 미스터리, 경영서, 과학서, 전기, 아동도서 등 분야도 다양했다. 게다가 유명 작가나 배우들의 낭독으로 내용 전달 효과도 컸다. 미국에서 오디오북 시장의 규모는 1989년부터 매년 27%씩 성장해 98년 당시만 해도 2,200,000,000달러의 대형 시장이 되었다.⁵¹⁾ 최근 2007년도 미국 오디오 출판인협회(APA)에 따르면 미국 독서 인구의 25%가 일주일에 4.5시간씩 오디오북을 청취하고 있다고 한다. 다운로드용

50) 최지영, “단말기 속속 개발 e-북 날개 단다,” 중앙일보, 2000. 9. 25. 49면.

51) “오디오북 판매로 620만 달러 순익,” 중앙일보, 2000. 4. 10. 52면.

오디오북은 전체 출판 시장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활기를 띠었다. 그래미상에도 오디오북 경쟁 부문이 수위권에 올랐으며, 앞 시기까지는 원작을 축약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테이프 18개 짜리 『죄와 벌』이 나오는 등 원작을 그대로 녹음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국내 오디오북은 80년대에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으나 결국 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6년도 ‘인티큐브’의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인티큐브’는 전문 작가를 동원해 드라마, 콩트, 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가공하여 흥미와 부가가치를 높였다. 2007년 당시 1,000여 종이 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매달 90여 편을 추가했다. 주로 실용서와 문학 중심으로서 은희경의 소설집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창비) 등은 반응이 높았다. 교보문고의 디지털 콘텐츠 전문 사이트인 ‘제노마드’도 이 시장에 가세했다. 어학교재를 중심으로 두산동아, 커뮤니케이션 ‘토도’ 등 전문 제작업체도 오디오북을 판매했다. 이처럼 오디오북이 인기를 끈 것은 종이책이나 e-북에 비해 이용이 간편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에 있었다. 문제는 제작시 저작권 확보와 별도 제작비가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출판계는 편의성이나 가격 대비 효과, 젊은 층 중심의 디지털 붐 등 그 잠재력으로 인해 오디오북 개척에 나섰다.⁵²⁾

한편 컴퓨터나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통해 읽을 수 있는 전자(e)책이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북토피아와 바로북, e북21닷컴, 고e북 등 10여 개의 전자책 업체가 있었다. 이전만 해도 대학 도서관이 전자책의 주요 고객이었으나 2004년도부터 전자책을 선택하는 독자가 부쩍 늘었다. 전자책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종이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독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 가나 컴퓨터를 대할 수 있고, PDA, 휴대폰이 일반화된 시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전자책 가격이 종이책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⁵³⁾

여기에 북텔러 붐도 일었다. ‘북텔러’는 말 그대로 ‘책 읽어주는 사람’이다. 북텔러는 ‘녹음하기 위해 책을 읽는 낭독자’를 가리키는 경우로서 ‘나레이터’, ‘스토리텔러’ 등으로도 불리웠다. 북텔러는 대개 책의 저자나 성우, 배우들이었다. 당시 연극배우가 녹음한 『가시고기』는 대중에게 인기리에 들려졌다. 국내 오디오북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북텔러 스타’를 꿈꾸는 이들이 등장하는 현상도 보였다. 북텔러는 1970년대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 등의 시 낭송집이 그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된 것은 2000년도부터이다. ‘오딧세이닷컴(<http://www.audisay.com>)’의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가시고기』, 『김홍경 동양의학 특강』 등의 오디오북들은 5,000 ~ 10,000부씩 팔렸다. ‘소리아(<http://www.sorea.com>)’와 ‘사운드북스(<http://www.sbooks.co.kr>)’도 공지영의 소설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나 라디오극 형식의 『그리스 로마 신화』 등 다양한 책들을 선보였다.⁵⁴⁾ ‘듣는 책’ 오디오북은 테이프나 CD, MP3 파일 형태는 물론, 시집, 경영서, 요

52) 김성희·김형수, “MP3로 듣는 오디오 북 뜬다,” 중앙일보, 2007. 7. 18. 18면.

53) 이희성, “꽃피는 전자책 시장,” 중앙일보, 2005. 5. 16. E12면.

54) 김정수, “지루한 책도 귀에 쏙쏙... ‘북텔러’ 인기,” 중앙일보, 2001. 6. 8. 48면.

리책 등 그 내용이 다양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미래의 책으로 ‘디지로그북’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는 점이다. ‘디지로그 북’은 디지털(전자)과 아날로그(종이)를 겸비한 책이라는 뜻으로 쓴 조어다. “디지로그 북이 책의 미래다”(박방주, 중앙일보, 2008. 3. 7. 25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가 제작한 디지로그북 『범종』과 『운주사』가 그 예인데, 책을 읽는 사람은 『범종』의 종이 책장을 넘기면서 컴퓨터로 책에 나오는 에밀레종을 쳐 그 종소리를 들을 수도, 내부 모습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다. 책에 나오는 그림을 컴퓨터에 달린 카메라가 촬영한 후 컴퓨터에 보내 독자가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꾸몄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책의 그림을 알아보고, 컴퓨터 속에 저장해 놓은 각종 문화재의 입체 영상을 꺼내 독자가 조작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전자책은 보관이 용이하고,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을 넣을 수 있지만 만질 수는 없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존재감을 느낄 수 없지만 복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종이책은 존재감이 있고, 원본이 있으나 소장이 불편하고, 재인쇄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디지로그북은 그 단점을 보완하고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미래형 책이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다매체 시대의 멀티미디어 북인 셈이다.



<그림 8> 범종에 관한 내용의 디지로그북에서는 컴퓨터로 내부도 볼 수 있고, 종소리도 들을 수 있다(박방주, “디지로그 북이 책의 미래다,” 중앙일보, 2008. 3. 7. 25면).

라. 여행 산문집, 근대조명의 서적 인기, 비주류 베스트셀러

2000년대 독서경향의 또 다른 특징은 여행 산문집과 근대 조명의 서적이 인기를 끌었고, 만화·팬타지·탐정소설 등 기존에 베스트셀러로서는 비주류였던 분야가 새롭게 부상했다는 점이다.

먼저 2000년도 초기에는 여행도서 시장이 풍성했다. 이에 대해 『출판저널』 11월호에서는 90년대 1세대 배낭족들이 출판계에 대거 진출하고, 인터넷 여행 정보 확산으로 단순한 자료 대신 ‘깊이’와 ‘이색체험’을 추구하려는 ‘신 여행문화’가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 예를 들자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류시화), 『한비아의 중국 견문록』,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같은 스테디 셀러와 함께, 『사라져가는 오지마을을 찾아서』(이용한), 『포구기행』(곽재구), 『그리고 삶은 나의 것이 되었다』(전경린) 같은 여행 '산문집'이 애독서 목록에 올랐고, 『영국 바뀌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처럼 장기 체류자의 교감이 있는 책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⁵⁵⁾ 한편 인문사회 부문에서 근대사를 색다른 시각으로 엮은 책들이 인기였다.⁵⁶⁾ 『근대의 책읽기』, 『연애의 시대』, 『서울에 판스홀을許하라』, 『모던뽀이, 京城을 거닐다』 등은 20~30년대 근대의 다양한 사회 문화사들을 조명한 서적들로서 2000년대 후반기인 지금도 그 붐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02년도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베스트셀러 1위는 만화였고, 2위는 팬타지였으며, 3위는 탐정소설이었다. 만화의 경우 알라딘 한 곳에서만 60,000부 넘게 팔린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는 2002년도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2위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약 30,000부가 팔려 해리 포터 시리즈에 이은 팬타지의 강세를 보여줬다. 3위는 『셜록 홈즈 전집』으로 20,000부 가량 팔렸다. 역시 아이들이나 읽던 탐정소설이 처음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경우였다. 그간 비주류에 속했던 만화 팬타지 탐정소설의 득세는 출판시장의 대전환을 의미했다. 2002년 출판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TV·영화·공연예술 등 미디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이다. 우선 TV의 독서 프로그램에서 추천한 책들이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아홉살 인생』이 7위에 오른 것을 비롯, 『팽이부리말 아이들』,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봉순이 언니』, 『연탄길』,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등 무려 7권이 상위 20위 안에 진출했다. 또 팬타지 매니아들만 보던 『반지의 제왕』이 영화와 시너지 작용을 일으켰으며, 뮤지컬의 성공으로 『오페라의 유령』도 널리 읽혔다.⁵⁷⁾

또한 2000년대 초에는 베스트셀러 중에 신간 서적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일례로 2002년말 베스트셀러 20위 안에서 2001년 하반기 이후 출간된 '신간'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셜록 홈즈 전집』,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 『뇌』,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2』, 『화』 등 6권이 그쳤다. 30위까지 보아도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 권이 올라 있었으며, 40위까지 가서야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 추가될 뿐이었다. 갈수록 베스트셀러 만들기가 어려워진 것이다.⁵⁸⁾

2. 학생 독서경향

가. 통계로 본 독서경향

문화관광체육부의 200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중 학생 독서 통계에서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율, 독서시간, 독서 환경 등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

55) 박영석, "여행 산문집 '시즌'을 초월한 인기," 조선일보, 2003. 11. 22. D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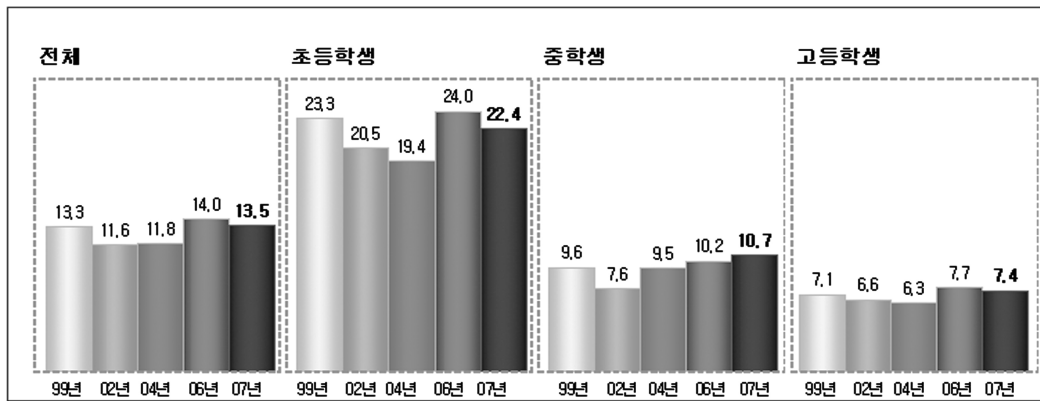
56) 박영석, "톱 셀러 이야기," 조선일보, 2003. 11. 29. D2면.

57) 조유식, "만화·팬타지·탐정소설 등 '비주류'가 베스트셀러 부상," 중앙일보, 2002. 12. 21. B5면.

58) 조유식, "만화·팬타지·탐정소설 등 '비주류'가 베스트셀러 부상," 중앙일보, 2002. 12. 21. B5면.

지(<http://www.mcst.go.kr>) 통계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전반적인 독서경향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독서율을 보면, 초·중·고생 한 학기 독서율은 90.6%로 2002년 이후 별 차이가 없었으며 과거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초·중·고 순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독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한 학기 독서량은 13.5권으로 2006년(14.0권)과 비교해 0.5권 감소했다. 초등학생 22.4권, 중학생 10.7권, 고등학생 7.4권으로 2006년에 비해 초등학생의 독서량 감소폭이 다소 큰 편이었다. 통계 자료에서는 컴퓨터, 게임 등 다른 매체 이용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표 6〉 학생 독서량 연도별 비교(단위 : 권)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http://www.mcst.go.kr/main.jsp>)의 통계 자료

학생들의 독서시간은 독서량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독서시간은 만화, 잡지, 신문을 제외한 ‘일반도서’ 독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일 독서시간은 45분, 주말 독서시간은 51분이었다. 여가 활용시 독서의 비중을 보면, 성인 > 초등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순으로 드러났다.

분야별 도서 선호도는 중고생의 경우 문학도서(42.7%) > 만화·무협지(23.7%) > 실용·취미도서(20.9%) > 교양도서(10.5%) > 기타(0.8%) 등으로 나타났으며, 초등생 중 남학생은 오락용만화(18%) > 학습용만화(14.7%) > 위인전(12.8%) > 역사(11.6%) > 과학(10.2%)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생 여학생은 어린이소설(17.5%) > 오락용만화(12%) > 학습용만화(11.3%) > 전래동화(8.7%) > 취미(7.8%) 순이었다. 여기에서 학교급이 낮을수록 만화에, 높을수록 문학류에 경도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독서환경면을 보면, 먼저 가정의 경우 가족간에 독서 관련 대화를 자주 한다는 응답이 성인 17.1%, 학생 14.4%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정에서의 독서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표 7> 여가 활용시 독서시간(단위 : %)

순위	성인		순위	초등학생		순위	중학생		순위	고등학생	
1	TV시청	24.1	1	TV보기	18.6	1	TV보기	14.3	1	TV보기	14.3
2	책읽기	9.6	2	컴퓨터 게임(집)	16.9	2	컴퓨터 게임(집)	14.1	2	인터넷하기	13.3
3	인터넷하기	9.0	3	책읽기	10.5	3	인터넷하기	10.9	3	컴퓨터 게임(집)	10.2
4	신문/잡지읽기	7.1	4	친구들과 어울림	8.1	4	음악감상	8.9	4	음악감상	8.0
5	수면/휴식	6.9	5	인터넷하기	7.8	5	친구들과 어울림	7.1	5	책읽기	6.9
6	친구, 동료모임/대화	4.8	6	만화책읽기	6.1	6	핸드폰 이용하기	6.9	6	케이블/위성방송보기	6.1
7	체력단련/운동	4.4	7	음악감상	4.8	7	책읽기	5.9	7	핸드폰 이용하기	5.9
8	등산/낚시	3.7	8	핸드폰 이용하기	3.7	8	수면/휴식	5.6	8	수면/휴식	5.9
9	영화관람	3.6	9	그림 그리기	3.0	9	케이블/위성방송보기	3.8	9	친구들과 어울림	5.7
10	종교활동	3.1	10	수면/휴식	2.9	10	PC방 가기	3.3	10	영화관람	3.9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http://www.mcst.go.kr/main.jsp>)의 통계 자료

녀 독서에 대한 학부모 관심도는 상급 학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시와 직면한 시기라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사회적 독서환경은 독서공간보다는 대중문화공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집 주변 여가시설은 PC방→노래방→비디오대여점→서점→도서대여점 순으로 사회적인 독서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실태를 보면 1년간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성인 33.3%(2006년 31.2%), 학생 52.6%(2006년 51%)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중학생 56.9% > 초등생 55.5% > 고교생 45.7% 이었다.

학교 독서환경을 보면, 조사대상 학생들 중 '학교도서관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95%이나, 실제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는 학생은 65%로, 이전 연도별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2002년(53.8%), 2004년(70.7%), 2006년(76%)로 나타났던 것을 보면 2006년까지 유지되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읽을 만한 책이 없다'(38.1%) >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8.5%) > '대출이 불가능하다'(2.5%) > '사서 선생님이 안 계신다'(2.3%) 순으로 들었다. 이를 보면 학교도서관은 장서면에서나 독서지도면에서나 모두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독서권장은 초(59.9%) > 중(54%) > 고(45.6%) 순으로 나타나 입시와 직결되어 있는 상급학교일수록 독서권장은 소홀했다. 학교에서의 독서지도는 독후감 쓰기(57.7%) > 도서관 이용·도서 분류(19.4%) > 책 선택과 읽는 방법(15%) > 독서토론회 및 발표(10.3%) 순으로 독후감 쓰기라는 전통적인 방식이 여전히 지배적인 독서지도 방법으로 교육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9)

59) 이상의 내용은 문화관광체육부(<http://www.mcst.go.kr/main.jsp>)의 200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한 것임을 밝힌다.

나. 어린이 책 출판 분야 수위권, 전집류와 만화북

2002년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2001년 출판통계’를 보면 2001년도에 나온 모든 책들 가운데 어린이 책이 발행 종수(種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전년도 대비)을 기록했다. 발행 종수는 17%, 발행 부수는 10.2%가 늘어났다. 어린이 책이 약진한 반면, 출판 시장 전체로는 발행된 책의 종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1년 발행된 책은 총 34,279종, 117,170,000부였다. 2002년도는 그에 비해 종수는 1.9% 감소했고, 부수는 3.7%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발행 종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만화로 전체의 26.5%였다. 만화 다음으로는 문학 14%, 아동 13.8%, 사회과학 12.1% 순이었다. 발행 종수의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아동도서에 이어 어학이 7.7%로 2위를 차지했다. 인문, 예술, 과학, 철학, 종교 등 나머지 분야의 책들은 일제히 감소세를 기록했고, 발행 부수면에서는 학습 참고서와 어학서가 각각 36.2%와 22.7% 증가해 1, 2위에 올랐다.⁶⁰⁾

“요즘은 아이들 책만 팔린다”(이은주, 중앙일보, 2008. 2. 2. 18면)라는 최근 기사에는 2007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도서 자료 집계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통계를 보아도 어린이 대상의 책들이 상승세를 보인다. 내용에 의하면 2007년도 발행된 신간 도서는 발행 부수에서 2006년과 대비해 17% 증가했으나 그 대부분이 아동 분야 도서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06년도에 발간된 신간 도서는 총 41,094종에 132,503,119부였다. 발행 종수에선 2006년 대비 9.7% 줄었으나 부수는 17.1% 늘었다. 부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아동도서로 총 56,747,059부가 발행돼 2006년보다 168.9%나 늘었다. 전체 발행 부수의 절반 이상(50.16%)을 차지하는 수치였다. 출협은 “대표적인 독서 문화세대인 386세대가 자녀의 독서교육을 증시하기 때문”이라며 “홈쇼핑 판매와 전집 등 방문 판매가 활성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동도서 다음으로는 만화(15.99%), 문학(15.31%), 학습참고(11.85%), 사회과학(8.22%) 분야 순이었다. 이에 비해 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어학·역사 분야 도서는 발행 종수와 부수 모두 감소했다.⁶¹⁾

한편 2004년도부터 아동용 전집류도 다시 부활하는 기색을 보였다. 『수학 개념동화』(교원), 『소설 삼국지』(교원), 『재미모리 동동』(한솔교육), 『마주보는 인물이야기』(한솔교육), 『호롱불 옛이야기』(웅진닷컴), 『도토리 세계명작』(웅진닷컴), 『크니크니 동화나라』(금성출판사), 『애니메이션 시리즈』(금성출판사), 『교양학습만화 조선왕조 500년』(금성출판사)등 전집류들이 인기를 얻은 것이다. 아동 전집류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는 분야였다. 그러나 새로이 인기를 얻자 업계는 다투어 아동전집 출판에 나섰다. 수십 권으로 된 전집 중 일부만 추려 판매하는 옵션 판매제도 새로 도입되었고 기존의 무겁고 두꺼운 양장본도 알뜰하게 바뀌었다. 디자인도 다양화해져 외관이 보다 세련된 전집이 출판되기 시작했다.⁶²⁾ 이와 더불어 만화북도 여전했다. 2007년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60) 승인배, “출판시장과 시대조류,” 조선일보, 2002. 1. 12. 42면.

61) 이은주, “요즘은 아이들 책만 팔린다,” 중앙일보, 2008. 2. 2. 18면.

가 발표한 '2000~2006년 밀리언셀러' 목록에 따르면 500만부 이상 팔린 책 7종 중 5종이 만화였다. 같은 기간 중 100만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는 모두 60종이었다. 이중 1위는 『해리포터』시리즈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각각 200만부씩 팔렸다. 그 뒤는 'Why'시리즈(850만부), '신기한 스쿨버스'(700만부), '마법천자문'(600만부), '서바이벌 만화과학상식'(530만부), '코믹메이플 스토리'(500만부) 순이었다.⁶³⁾ 전집류는 중국 등 해외로 수출되어 출판 전망이 밝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 불황 없는 학습지 시장

2000대에 들어 토론식 국어 학습이 유·초등 학습지 시장에 확산되었다. 기존 국어 학습지는 사지선다형 문제풀이를 통해 문장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 대세였고 읽기와 쓰기 위주였다. 무조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뜻이 통하고 이를 이해하면 된다는 교육방식,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적 교육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어린이 국어 학습지 시장에는 일방적인 교육방식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대화를 통해 무언가 발견하게 하는 토론식 독서법이 도입되었다. 즉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 스스로 터득하도록 분위기만 이끌어가는 플라톤의 대화법을 인용한 학습 방법이었다. 미국에서 도입된 이같은 학습법이 사교육 시장에서 확산되어 갔다.⁶⁴⁾

한편 논술 부활을 예고하는 입시안이 발표되면서 논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교육기업마다 상품을 개편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다.⁶⁵⁾ 오랜 전통의 대입 전문학원이 초등 논술 시장을 넘볼 정도였다. 기존 업체들은 논술학원 등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대상을 4살 유아까지 내린 업체도 있었다. 독서·논술·토론 시장은 2004년도 한해 110,000,000,000 시장이 형성됐다.⁶⁶⁾ 이러한 추세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독서 잡지인 『평설』, 『디딤돌』, 『독서광장』, 『글과 생각』, 『논술 세대』 등이 발간되기도 했다. 이 잡지들은 대개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등장했는데, 교양적 성격보다 대입 수능의 언어 영역과 논술 시험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적 성격을 지녔으며, 중·고등학생 등 독자 대상에 따라 수준별로 세분화되었다.⁶⁷⁾ 여기에 독서 학습지가 교육서비스 업계의 이슈로 등장하여,⁶⁸⁾ 학습지 열풍은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62) 허민경, "아동 전집류 다시 뜬다." 중앙일보, 2004. 3. 10. C2면.

63) 이지영, "세다, 어린이 학습만화." 중앙일보, 2007. 5. 22. 23면.

64) "토론식 학습지 시장 봄바람." 중앙일보, 2002. 3. 20. 57면.

65) "초등생 논술학습지 붐물." 중앙일보, 2002. 8. 21. C3면.

66) 조용현, "학습지 시장 여풍 거세다." 중앙일보, 2004. 5. 18. C5면. 김소연, "타오르는 독서·논술 시장."(중앙일보, 2005. 1. 18. C1면.

67) "눈높이 키우는 고교생 읽기자료." 중앙일보, 2002. 7. 13. 45면.

68) 김아영, "독서 학습지 봄 인다." 중앙일보, 2003. 3. 12. C3면.



〈그림 10〉 “토론식 학습지 시장 봄바람”(중앙일보, 2002.3.20)

라. 부담없는 책 즐기는 대학생

“대학생들 가벼운 책이 좋아”(배영대, 중앙일보, 2000. 7. 25, 26면)를 보면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학도서관에서 주로 대출해 읽는 책은 팬터지, 무협, 대중소설 같은 가벼운 읽을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 내용은 「교수신문」이 ‘책 읽히는 대학교육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국 대학교수 사이버 대토론회(<http://www.kyosu.net>)’의 자료이다. 이는 2000년대 상반기 대학생 대학생 도서대출 상황에 관한 독서실태로서,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등 6개 대학 설문지 응답 결과였다. 부산대의 경우 최대 대출 도서 10권 중 『묵향』, 『드래곤 라자』, 『영웅문』 등 5권이 팬터지이거나 팬터지와 무협을 섞은 ‘무협팬터지’였다. 충남대는 『데프콘』, 『다크문』, 『퇴마록』 등 8권이 무협과 팬터지였고, 전북대는 10권 중 9권이 팬터지였다. 고려대도 『가즈나이트』, 『검마전』, 『흑기사』 등 팬터지류가 대거 상위권에 올라 있었으며, 서울대는 무협지나 팬터지 계통은 없지만 『로마인 이야기』 외에는 『좁머씨 이야기』, 『장미의 이름』, 『상실의 시대』 등 외국 소설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3. 2000년대 독서경향과 그 시사점

앞서서 2000년대 독서경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일반인 독서경향은 첫째, 문고본 시대의 부활, 인터넷 서점의 성장, 둘째, 자기계발, 새 직업 관련서의 인기, 셋째, 다매체 시대의 멀티미디어 북, 넷째, 여행 산문집과 근대 조명의 서적 인기, 비주류 베스트셀러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기에 출판계에 문고판 바람이 불어 〈삼중당문고〉, 〈서문문고〉, 〈문예문고〉 등 전성기를 누렸던 문고본이 다시 활성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인터넷 서점이 성장세를 보였으며, 컴퓨터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N세대를 겨냥한 오디오북, 전자책

이 잇따라 선보였고 북텔러 붐이 일기도 했다. 그야말로 다매체 시대의 멀티미디어 북이 지배적인 시대였다. 또한 여행 산문집과 근대 조명의 서적 인기를 끌고, 만화·팬타지·탐정소설 등 '비주류'가 베스트셀러로 부상했다.

학생 독서경향은 첫째, 통계로 본 독서경향, 둘째, 어린이 책, 출판 분야 순위권, 전집류 붐, 셋째, 불황 없는 학습지 시장, 넷째, 부담없는 책 즐기는 대학생 등의 목차로 지배적인 특징만을 살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부의 200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자료의 학생 독서 통계에서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율, 독서시간, 독서 환경 등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독서율을 보면, 초·중·고 순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독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컴퓨터, 게임 등 다른 매체 이용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독서시간은 독서량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이 낮을수록 만화에, 높을수록 문학류에 경도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독서환경을 보면 가정의 독서 대화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독서에 대한 학부모 관심도는 상급 학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입시위주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사회적 독서환경은 독서공간보다는 대중문화공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 독서환경에서 도서관은 장서면에서나 독서지도면에서나 모두 미흡했다. 교사들의 독서지도도 입시와 직결되어 있는 상급학교일수록 소홀했으며 독서지도도 독후감 쓰기라는 전통적인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서 사회적 독서환경의 개선 노력, 학교의 독서환경 개선,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 등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 여겨진다. 한편 2000년대 출판계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현상을 보였는데, 어린이 책만은 약진하는 기세였다. 이와 함께 외관이 세련된 아동용 전집류가 다시 부활하는 기색을 보였으며 토론식 국어학습이 유·초등 학습지 시장에서 확산되었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주로 팬타지, 무협, 대중소설 같은 가벼운 읽을거리를 즐기는 경향을 보여 지적인 독서가 아닌 흥미위주의 독서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를 보면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독서지도가 보다 질실함을 인식케 한다.

I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기 독서운동과 독서경향의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고는 근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에 속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시기별 독서 현상의 변화상을 비교 분석하고, 오늘에 이르는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현주소를 찾아보려는 데 목표를 두고 연구하였다. 앞선 본론에서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하여 고찰하였는데 첫째, 200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의 양상, 둘째, 2000년대 독서경향 등이다.

첫째, 독서운동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먼저 도서관의 정보화 사업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 보다 첨단화되었는데, 이러한 정보화 추진 사업들은 지식경영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정보 수요자의 시간과 노력이 훨씬 줄게 되었다. 이 시기에도 도서관 뿐만 아니라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 방송 매체 등에서도 독서 대중화에 앞장섰다. 한편 학생 독서운동은 아동 대상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 아동 독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일어 수도권 곳곳에는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의 전문서점들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었다. 단체나 신문 저널, 인터넷 등에서도 학생 독서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도서관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둘째, 독서경향을 보면, 먼저 일반인의 경우 2000년대 초기에 출판계에 문고본이 다시 활성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인터넷 서점이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N세대를 겨냥한 오디오북, 전자책, 북텔러 붐이 일어 다매체 시대의 새로운 독서물로 부상했다. 이외에도 현실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자기계발서나 여행기 등이 애독되고, 흥미위주의 만화·팬타지·탐정소설 등이 흥미위주의 서적이 베스트셀러로 부상했다. 한편 학생 독서경향을 보면, 2000년대 출판계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현상을 보였는데, 어린이 책만은 호조를 띠었다. 이와 함께 아동용 전집류가 다시 부활하는 기색을 보였으며, 토론식 국어학습이 유·초등 학습지 시장에서 확산되었다. 특히 토론식 독서법이 어린이 국어 학습지 시장에 도입되어 인기였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주로 출해 팬타지, 무협, 대중소설 같은 가벼운 읽을거리를 즐기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2000년대 학생 독서경향은 이전 시기와 다르게 다양한 현상들을 도출해내기 힘들었다. 학습지가 그 어느 때보다 붐을 타고 그 내용도 다양화되었지만, 일반 서적에서 경향성을 드러내는 특징들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것은 인터넷 세대들의 독서 현상이 표피적이고 산발적이라는 데에 한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2000년대의 출판계는 IMF의 충격이 여전히 잔존하여 불황 상태가 지속된 시기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독서운동은 지속되었고, 특히 어린이 독서운동은 강화되었다. 또한 일반인 독서의 경우 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밀리언셀러로 부상하는 베스트셀러를 거의 찾기 어려웠다. 독서경향도 이전 시기처럼 지배적인 현상으로 묶여지기 어려운 면도 많았다. 다소 산만한 성향을 띠고 있어서 그 주경향을 정치하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 세대에 맞는 오디오북, 전자책 등의 상승세는 지배적인 경향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학생 독서물에 대한 관심과 학습지의 호황, 입시정책과 청소년 독서의 장려 등은 교육열이 지대한 우리 사회의 풍토를 다시금 확인케 하는 측면이었다.

참 고 문 헌

- 『중앙일보』(2000~2008).
- 『조선일보』(2000~2008).
- 강미혜, “도서관 관중별 연속간행물 업무의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권(1996. 8), pp.1-19.
- 김영기,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 서울 : 한울 아카데미, 1999.
- 김중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0.
- 남산도서관, 80년사 남산도서관, 서울 : 남산도서관, 2002.
- 도서관운동연구회자료, “한국신문과 도서관.” 도서관운동, 제2권, 제2호(1996), pp.31-46.
- 박영민, “독서교육의 성격과 유형.” 청람어문교육, 제31집(2005), pp.53-74.
- 신헌재 외,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 서광학술자료사, 1993.
- 새마을문고中央會, 새마을文庫運動40年史, 서울 : 새마을문고中央會, 2005.
- 오경복,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 비교한국학, 제13권, 제1호(2005), pp.1-16.
- 윤금선, “1920~30년대 독서운동 연구.” 한말연구, 제17집(2005. 12), pp.129-167.
- 윤금선,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7집(2006. 6), pp.333-380.
- 윤금선, “日帝強占期 學生 讀書運動 研究.” 語文研究, 133호(2007. 3) pp.389-413.
- 윤금선,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6), pp.271-294.
- 윤금선,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1970년대를 초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24호, 한국어교육학회(2007. 10), pp.245-280.
- 윤금선, “1980年代 中後半期 讀書大衆化 運動 研究.” 語文研究, 137호(2008. 3), pp.509-532.
-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 II,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 이중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0.
- 이중환 외, 우리 출판 100년. 서울 : 현암사, 2001.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서울 : 푸른역사, 2003.

